



90
Interview ①

97세 현역회원, 서울중앙RC
이성철 초대회장을 모시고

“로타리 인생, 친구하고 보람이 남았지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오찬주회에 참석한 계평(啓平) 이성철 전회장을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만났다. 연세가 아흔일곱이니 우리 지구 내 현역 로타리안으로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원로이다. 1984년 5월 25일 창립한 서울중앙로타리클럽 초대회장으로서 오늘날까지 35년째 활동 중이다.

“로타리의 핵심은 출석과 회비입니다.”

원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로타리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회원의 기본과 원칙을 제일조로 꼽는다. 주회가 클럽의 중심이므로 주회 참석이 기본이라는 말씀이다. 31년 개참상을 받은 분이기에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아울러 매번 주회에 1만원씩 꾸준히 내는 일반성금도 봉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몇 해 전 무릎을 다쳐 걸을 때 다소 스틱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건강한 모습. 특히 기억력이 대단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회원들 이름과 신상, 친소관계 등을 막힘없이 줄줄이 꿰고 있어 놀랍다.

계평 회장께서는 공직생활과 KOTRA 임원을 거쳐 나드리화장품 사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 송인상 총재께서 권유해 한양로타리를 모클럽으로 서울중앙로타리가 창립되었다. 당시 창립멤버가 15명이었는데 지금도 6명이 현역으로 활동중이다.

요즘 지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패밀리 투게더처럼 한양로타리클럽 회원의 자서제질(子壻弟姪), 즉 회원의 자녀와 사위, 동생과 조카 등 가족들을 모아 새 클럽을 만들자고 하여 서울중앙로타리클럽이 태동되었다.

“한양에도 부자(父子) 회원이 있었으나 자서제질들로 클럽 하나 만들자 하셨어요. 삼부토건 조정구 회장 아들 조남욱, 벽산 김인득 회장 아들 김희철, 초대 RI 이사를 지내신 김영휘 한국은행 총재의 아들 김인희, 유



지난 2011년, 3650지구 연탄봉사 활동에 참가한 이성철 초대회장(맨 왼쪽)



주회가 열리는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대담 중인 이성철 초대회장

한양행 유일한 회장의 동생분이 운영하는 유유산업 사장의 아들 유승필 씨...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클럽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찬주회 때마다 한양의 어른들이 ‘후견인 역할’을 하느라 늘 몇 분씩 메이크업을 나왔고, 문춘식 특별대표는 항상 참석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로타리의 기둥 같았던 오재경, 송인상 두 어르신이 그림다.”고 옛날을 떠올린다. 이렇듯 처음 입회했을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로타리를 제대로 배우고 원칙을 지키는 로타리안이 된 것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한다. 시대가 변했어도

후배들이 근간을 지키는 로타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봉사를 견지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힌다.

로타리와 함께 거의 반평생을 보내셨으니 어떤 보람을 느끼실까 궁금하다.

“이 나이에도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게 보람이죠.” 로타리가 준 선물이 친구라니 뭉클하다. “또 하나 보람을 말한다면, 각성제 효과예요. 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수양의 기회였지요.” 그리고 그동안 8~9개국의 세계 대회에 참석해 그 나라의 공연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추억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백세를 바라보는 연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특별한 건강비결은 있으실까.

“나이 들어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남다른 운동법이나 특별한 섭생법은 없다. 오로지 그림 그리기가 스트레스 해소나 정신적 여유를 갖는 데 일조하지 않았겠느냐고 답답하게 말씀한다. 세종문화회관, 프레스센터 등 세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올드 보이”가 되어 요즘은 수채화만 하고 있다고 웃음을 보인다. 무릎이 불편한 이유도 연탄 봉사활동에 나섰다가 다치신 것이라고 동석한 박수부 차차기총재(서울중앙RC)가 귀띔해준다.

“클럽 10주년 때 회원 자제들을 중심으로 서울광화문로타리클럽을 만든 적이 있어요. 박승훈 씨가 회장을 하고 내가 특별대표를 할 때였죠. 자제들이 대개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을 나온 인재들을 모아서 창립했는데 아쉽게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로타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을 지킬 때 진정한 로타리안이 되는 것이고 그 클럽도 우수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담/신문영 지구 사료위원장, 신홍래 편집위원장(글)